

오케스트라 프라이빗 에쿼티, 네 번째 펀드 조성 후 피자 브랜드 ‘반올림피자샵’ 투자 완료

“오케스트라 프라이빗 에쿼티 제4호 사모투자합자회사” 성공적으로 설립, 향후 동남아시아, 일본 등을 포함한 아시아 시장 진출 도모

배포일: 2021년 11월 03일

오케스트라 어드바이저스 코리아 유한회사 (이하 “오케스트라”)는 국내 토종 딜리버리 피자 브랜드인 ‘반올림 피자샵’을 운영하는 ㈜반올림식품 (이하 “반올림피자”)의 투자를 위하여 프로젝트 펀드인 “오케스트라 프라이빗 에쿼티 제 4 호 사모투자합자회사” (이하 “OPE IV”)를 설립하였습니다. 본 펀드는 반올림피자의 본사 및 수도권지사 ㈜반올림식품서울의 지분에 투자하기 위해 조성되었습니다. OPE IV의 출자자는 한국의 기관투자자로 주로 구성되었으며 투자 이후 매도인인 윤성원 대표와 파트너십을 형성해 국내외 확장과 더불어 다양한 전략적 경영관리를 통해 투자수익을 극대화할 예정입니다.

반올림피자는 도우와 갈릭소스 등의 핵심재료를 대구에 소재한 본사 및 공장에서 자체 제조하여 업계 경쟁사 보다 효율적으로 품질관리에 신경 쓸 수 있습니다. 또한 내부 R&D 및 마케팅팀에 꾸준히 투자하여 주요 소비자층인 2030의 입맛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자체 주문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였고 2021년에는 다양한 소셜 플랫폼과의 협업을 통해 브랜드 노출을 대폭 확장하여 주문이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아이유’를 전속모델로 발탁해 다양한 연령층에 브랜드를 각인시키며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넓히고 있습니다.

현재 반올림피자는 전국 약 300개의 가맹점을 관리하고 있으며 가맹점 총 매출은 연평균 약 25% 이상 성장하여 1200억원 이상을 올해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올림피자는 창립 후 약 10년의 짧은 기간에 피자업계 상위권의 기업으로 성장하여 2020년에는 국내 피자 전문 프랜차이즈업계에서 매출기준 4위를 달성했습니다.

오케스트라의 김주형 매니저는 “반올림피자는 대구에서 시작한 브랜드지만 불과 몇 년 만에 전국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며 “오케스트라와 함께 반올림피자를 성공적으로 전국 1위 브랜드를 넘어 아시아의 대표적인 피자브랜드로 성장시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반올림피자를 통해 오케스트라는 네 번째 펀드를 설립하여 약 2,500 억원 수준의 운용자산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본 펀드의 재무, 세무 자문사는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경영컨설팅은 LEK Consulting, 법률자문사는 LAB Partners 가 맡았습니다.

오케스트라 프라이빗 에쿼티 개요

오케스트라 프라이빗 에쿼티는 동북아시아에 기반을 둔 크로스보더 운용사로서, 중견·중소기업에 투자하여 ‘글로벌 챔피언’으로 성장시키는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입니다. 오케스트라는 투자대상기업의 내재적 가치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성장 관점에서 기업가치 창출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적용합니다. 또한 피투자기업의 경영진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회사의 유기적인 성장 및 지역 확장과 더불어 탁월한 리더십을 통해 사업을

제도화하고 국내외 추가인수합병을 추진하여 기업가치를 제고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www.orchestraprivatetequity.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에 대한 문의는 information@orchestraprivatetequity.com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반올림피자 개요

반올림피자는 2013년 설립되어 한국 대구에 본사 및 2개의 공장이 소재하고 있는 배달 전문 피자 프랜차이즈 기업입니다. 국내에서 네번째로 큰 피자 회사이며, 개성 있는 피자토픽으로 젊은 고객층으로부터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반올림 브랜드는 창립 이래 빠르게 성장하여, 현재는 약 300개 가맹점을 보유한 국내 최고의 피자 브랜드 중 하나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handmadepizza.c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